‘쎈돌’ 이세돌 기록의 사나이

‘쎈돌’ 이세돌(25) 9단이 ‘기록의 사나이’로 등극했다. 이세돌은 최근 조훈현·이창호 등 선배 프로 바둑기사들이 세운 연간 최다 상금기록 등을 모두 갈아치울 기세다.

보유 타이틀만 8개…연간 최다 상금에 도전

“응씨배 꼭 우승, 한국 바둑사 새로 쓰겠다”

▲연간 최다 상금 경신=이세돌은 최근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에서 한상훈을 꺾고 받은 우승 상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해 올해 누적상금이 벌써 4억5천291만원이나 된다.

현재 페이스라면 자신의 연간최다 상금액인 2005년의 6억143만원 돌파는 물론 2003년에 이창호가 세웠던 연간 최다상금 10억여원의 기록 경신도 도전해 볼 만하다.

올해는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응씨배와 격년제로 열리는 춘란배 등 굵직한 세계대회가 기다리고 있어 가능성이 한층 높다. 이세돌의 라이벌인 이창호는 올해 2월까지 5천176만원의 상금을 벌어 이세돌에게 많이 뒤지고 있다.

▲역대 통산 타이틀수 도전=이세돌이 획득한 통산 타이틀 수는 26개다. 국제대회만 10회에 이른다. 29개로 5위에 올라 있는 서봉수와는 불과 3개 차이다.

역대 통산타이틀 1위는 157개의 조훈현이고, 2위는 135개(비공인 타이틀 2개 포함)를 획득한 이창호다. 조남철과 김인이 30개로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고인이 된 조남철과 승부에서 멀어진 김인, 2003년 시니어기전에서 우승한 후 더 이상 타이틀무대에 서지 못하는 노장 서봉수를 감안한다면 이세돌이 역대 통산 타이틀 획득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대회 타이틀 기록 눈앞=이세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만 8개다. 8개 타이틀은 2003년 이창호 이래 5년 만의 일. 이 가운데 세계대회만 4관왕(TV아시아선수권, 도요타덴소배, 삼성화재배, LG배)이며, 이것은 이창호가 2004년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운 4관왕(춘란배, 도요타덴소배, 응씨배, LG배)과 타이의 기록이다.

세계대회 타이틀만 따진다면 이번이 10차례 우승으로 11번 우승한 2위 조훈현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이 부문 역대 1위는 23차례 우승한 이창호다.

▲“응씨배 꼭 우승하겠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비롯해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세돌의 천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께 경쟁을 펼쳐야 할 동료 프로기사들도 이세돌의 가파른 상승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성진 9단은 “이세돌을 무작정 싸움만 하는 기사로 평가하지만 놀랄 만큼 냉정하고, 수 읽기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세돌도 LG배 세계기왕전 우승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는 세계대회가 많이 열리는 해이다. 따라서 두 개 정도 더 우승하고 싶다.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4년에 한 번 열리는 응씨배 타이틀을 따내고 싶다”며 한국 바둑사를 새로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세돌 9단. 〈사이버 오로 제공〉

3월 랭킹 1위 이세돌…2위 이창호, 한상훈 9위→7위 도약

이세돌 9단이 3월 랭킹순위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한국기원은 7일 “이세돌이 1만6천244점을 획득해 1만4천216점을 그친 이창호 9단과의 격차를 2천28점으로 더 벌리면서 지난달에 이어 3월에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세돌은 지난달 2승2패의 성적을 거뒀지만 LG배 우승 등에 힘입어 605점이 상승, 무난히 1위 자리를 수성 했다. 이창호 역시 지난달보다 285점이 상승하면서 1위 추격의 여지는 남겼다.

3월 랭킹은 프로기사의 한국바둑리그 진출의 향방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번 순위에서 1위~10위까지 약간의 순위 변화가 있었다. 한상훈 3단이 전자랜드배 청룡왕전 우승, LG배 준우승 등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9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다.

한국바둑리그 본선 시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8개팀으로 리그전을 치를 경우 28위까지 배정된다. 이 때문에 3월 랭킹에서 28위 안에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김주호 7단, 이정우 6단이 각각 27, 28위로 본선 시드 배정을 보장받은 가운데 배준희 2단, 송태곤 8단, 최원용 5단, 최명훈 9단, 박승화 2단, 윤성현 9단, 윤찬희 2단 등이 각각 29~35위에 올라 있다. 본선 시드를 배정받지 못하면 예선전을 통해 출전권을 따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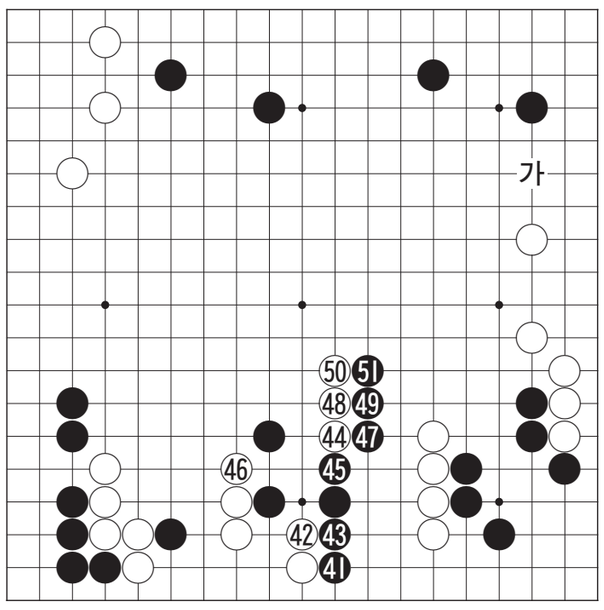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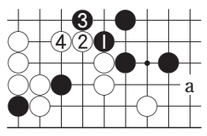
광주유단자연구회 리그 결승전

기선을 뺏긴 대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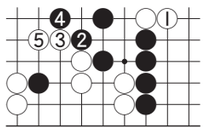
4보(41~51)

白 심재욱 6단 黑 정찬근 6단





〈참고도 1〉



〈참고도 2〉

수가 예상치 못한 강수였는지 심재욱 6단 재차 46으로 늘었는데 이 수가 흑 47을 간과한 대악수가 되었다.

정찬근 6단 흑 47로 귀중한 선수를 잡은 정찬근 6단 선택한 곳은 흑 41의 차단이었다. 그러나 이 수는 작은 곳으로 의문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호구치고 3 다음 ’가’를 차지할 자리였다.또 하변을 차단한다면 ’a’로 두는 것이 보통이다.

접근전이 시작되자 심재욱 6단 손맵시도 날렵하게 백 44로 급소를 때리고 나선다. 아픈 곳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찬근 6단 흑 45로 치받는 수를 발견해낸다. 이 젖히고 51까지 신나게 밀어올리자 백은 반항할 여가가 없다.

백 46으로 인해 중앙싸움에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하고 만 것이다.

백 46으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늘어두어 참는 것이 정수였다.

흑 4까지는 흑의 권리로 인정했으면 편했던 것이다. 실전과는 엄청난 차이였다. 심재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도 ‘한류’ 대열 합류

태국서 어린이 지도 다면기·특별 대국 가져

세계 바둑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바둑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원은 지난 1일 태국 칸차나부리에서 제9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1국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바둑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승 대국과 함께 태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대현·윤성현 9단, 현미진 4단이 어린이들을 위한 지도 다면기를 했고 김영삼 7단은 태국바둑협회의 지도사범으로 있는 중국 출신의 시즌보 3단과 특별대국을 뒀다.

이에 앞서 한국기원은 지난 1월에도 지난해 한국바둑리그 우승팀의 베트남 투어를 실시했다. 우승팀인 영남일보를 비롯해 8개팀 감독 및 기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베트남 바둑 팬들에게 지도 다면기 및 특별 지도를 했다.

이영구 7단(왼쪽)이 베트남 바둑 동호인들에게 다면 지도를 하고 있다. 〈사이버 오로 제공〉

이번 지도를 통해 베트남도 훌륭한 바둑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지난 1998년 바둑이 보급된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현재 50여 명의 바둑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류 VS 시니어’ 지지옥션배

서봉수·최규병·장수영 본선 올라

서봉수·최규병·장수영 9단이 여류 프로기사와 시니어팀이 대결을 벌이는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기원은 7일 “예선을 거쳐 이 대회 시니어팀 최종 주자로 서봉수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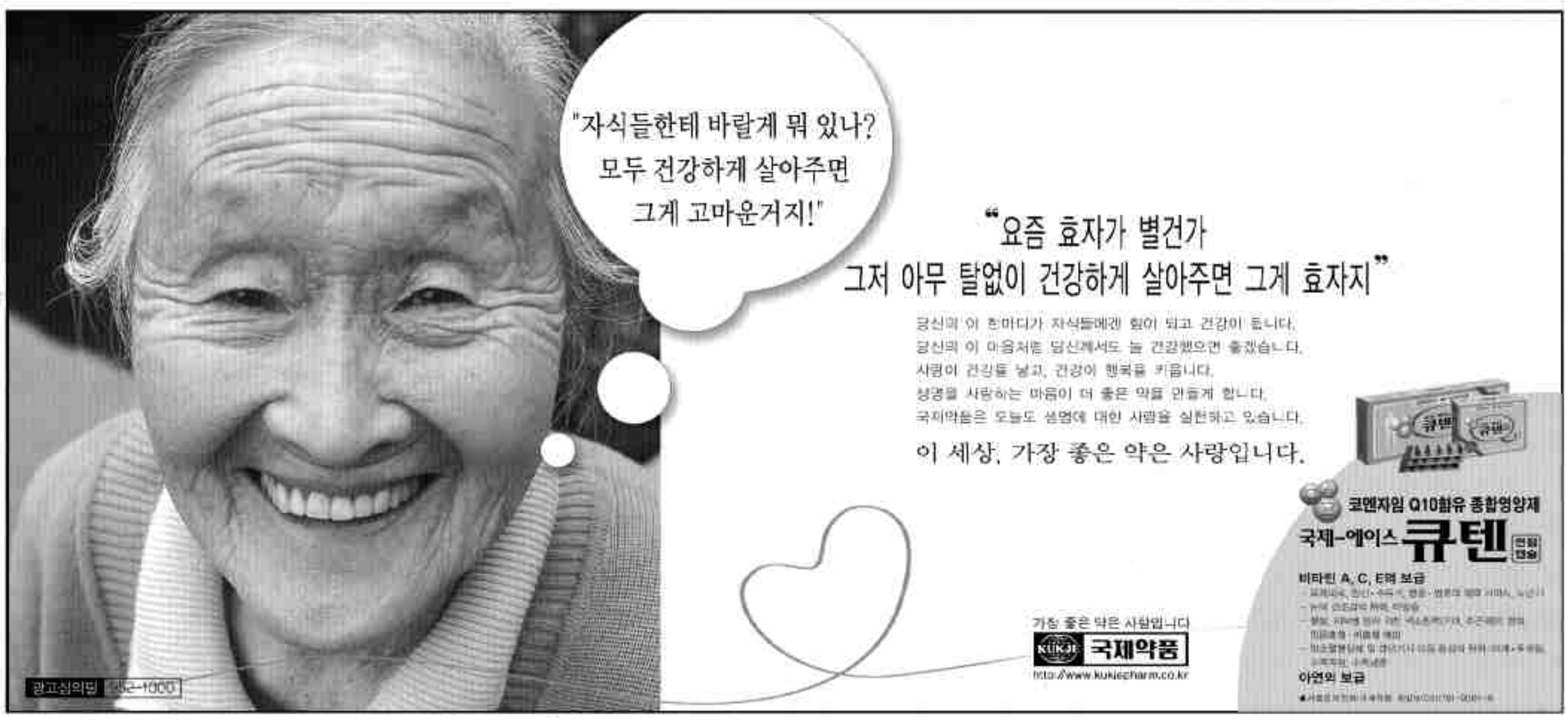
시니어팀은 서봉수·최규병 등이 본선에 오르면서 지난 대회보다 한층 더 강화된 전력으로 여류팀과 맞서게 됐다. 일찌감치 시드 배정을 받은 조훈현·김일환·양재호 9단 등 팀원들의 실력이 만만치않아 제1기 대회에서 처럼 초반부터 여성팀에 주도권을 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창호 이야기’ 일본어로 번역, 출간된다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한 ‘돌부처’ 이창호의 이야기가 일본에서 책으로 번역, 출간된다.

일본의 바둑전문 출판사 기에이(棋苑)사는 최근 바둑전문인터넷업체 세계사이버기원 손종수 이사가 지은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의 일본어 번역 출판계약을 맺었다.

일본에서 이창호의 바둑 기술서적은 몇 차례 출간된 적은 있지만 이창호의 출생부터 성장과정 등에 관한 책이 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책은 올해 9월 출간 예정.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